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0번 우승의 금자탑을 세운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28일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 소집돼 내달 14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한·일 클럽 챔피언십'을 대비한 훈련에 돌입, 몸을 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리틀 태극전사들 伊 깐다

U-17월드컵 예선 2차전
내일 16강 길목서 맞대결

2009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에서 기본 좋은 출발을 한 리틀 태극전사들이 16강 진출 길목에서 유럽의 '강호' 이탈리아와 만난다.

이광중 감독이 이끄는 한국 청소년대표팀은 30일(한국시간) 자정 나이지리아 카두나 의 아마두 벨로스타디움에서 이탈리아와 대회 조별리그 F조 2차전 경기를 벌인다.

한국은 개막전에서 남미의 '북병' 우루과이를 3-1로 꺾어 알제리를 누른 이탈리아에 골득실(한국 +2, 이탈리아 +1)에서 앞서 조 선두로 나섰다.

이탈리아까지 물리친다면 2연승 행진으로 알제리와 최종 3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일찌감치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비기만 해도 3위 네 팀에 주어지는 와일드카드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지더라도 큰 점수차로 지지 않는다면 마지막 알제리와 경기에서 16강 진출을 확정할 수 있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약체' 알제리를 1-0으로 힘겹게 꺾어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광중 감독도 출구에 앞서 "이탈리아는 강하지만 후반에 체력과 스피드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다. 전반에 골을 허용하지 않고 잘 버티다면 후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감독은 우루과이와 경기 때 썩어골을 넣었던 원톱 스트라이커 이종호(광안제철교)를 중심으로 한 골쪽을 사냥했던 미드필더 손흥민(동북고), 남승우(부경고)를 전진 배치해 이탈리아의 골문을 허물겠다는 복안이다.

수비라인에는 대회 직전 중앙수비수 임창우(울산현대고) 오른쪽 피로 골절로 전역에서 이탈했지만 주장 완장을 찬 김진수(신갈고)와 임동천(백암고) 등이 두터운 방어벽을 친다. 골키퍼 장갑은 김진영(이리고)이 그대로 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총 12차례 열린 U-17 월드컵에 세

차례 본선 무대를 밟았지만 조별리그 관문을 통과한 건 8강에 올랐던 1987년 캐나다 대회 한 번뿐이었다. 그러나 2003년 핀란드 대회와 안방에서 개최됐던 2007년 한국 대회 때는 모두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특히 이탈리아는 한국이 최고 성적을 냈던 1987년 대회 8강에서 0-2 패배를 안겨 4강 진출을 좌절시켰던 팀이기에 후배들이 대신 설욕에 나선다.

이탈리아는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약체' 알제리를 1-0으로 힘겹게 꺾어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광중 감독도 출구에 앞서 "이탈리아는 강하지만 후반에 체력과 스피드가 떨어지는 걸 확인했다. 전반에 골을 허용하지 않고 잘 버티다면 후반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이 감독은 우루과이와 경기 때 썩어골을 넣었던 원톱 스트라이커 이종호(광안제철교)를 중심으로 한 골쪽을 사냥했던 미드필더 손흥민(동북고), 남승우(부경고)를 전진 배치해 이탈리아의 골문을 허물겠다는 복안이다.

수비라인에는 대회 직전 중앙수비수 임창우(울산현대고) 오른쪽 피로 골절로 전역에서 이탈했지만 주장 완장을 찬 김진수(신갈고)와 임동천(백암고) 등이 두터운 방어벽을 친다. 골키퍼 장갑은 김진영(이리고)이 그대로 걸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총 12차례 열린 U-17 월드컵에 세

호랑이굴에 붙어닥친 칼바람



KS 우승 여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재주·최경환 등 방출
김중모 수석코치 해고... 한·일 챔피언전 앞둔 선수단 술렁

KIA 덕아웃이 심상치 않다.

KIA 타이거즈 선수단이 3일간의 짧은 휴가를 마치고 28일부터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훈련을 재개했다. 선수단은 3일 훈련 1일 휴식 일정으로 다음달 14일 일본 나가사키에서 열리는 한일 챔피언십시리즈를 준비하게 된다.

승자탑의 여유가 넘칠 것 같던 첫 훈련이었지만 이날 선수단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4월부터 전격전 대장정에 지친 탓도 있지만 우승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붙어 '칼바람' 때문이다.

KIA는 28일 김중모 수석코치를 비롯해

김봉근 2군 투수코치, 이광우 재활코치 등 코칭스태프 3명과 재계약을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칸베 투수 코치는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의 뜻을 밝히고 일본으로 돌아갔고, 구천서 2군 수비코치는 한화로 자리를 옮겼다.

야수 이재주, 최경환과 투수 장문석, 김영수, 조동현은 자유계약선수로 방출됐다. 또 1군에서 선수들을 살렸던 장세홍 트레이너는 2군으로 이동했다.

KIA 유니폼을 벗게 된 이들은 어제 오후 퇴출 통보를 받았다. 휴가를 즐기고 있던 선수단은 이날 오전에야 이 소식을 접했다. 12년만의 우승무대에서 함께 했던

김중모 수석코치와 이재주, 최경환이 갑작스레 팀을 떠나게 되면서 덕아웃 분위기가 술렁거렸다.

"패전팀의 덕아웃 같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승 후 첫 훈련 분위기는 무거웠다. 팬들 사이에서도 퇴출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됐다.

매년 시즌이 끝나면 각 팀들은 선수단 정비에 들어간다. 코칭스태프 개편과 함께 신인선수들이 영입되는 만큼 선수단 정리가 병행한다.

이번 개편이 어느때 보다 논란이 되는 것은 '한국시리즈 우승 여운' 탓이다. 우승 멤버로 뛰었던 이들이 '칼날'을 피하지 못

하면서 선수들은 물론 팬들에게 그 충격이 컸다.

KIA는 "새로운 분위기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구단으로 옮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당사자들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발표를 서두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훈련장에 조범현 감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에 머물고 있는 조 감독은 오는 31일께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감독의 부재, 수석코치의 공석으로 훈련은 황병일 타격 코치의 주도 아래 진행됐다.

조범현호의 정비는 아직 진행형이다. 김진수 스카우트가 투수코치로 보직변경했고, 히어로즈 백인호 작전코치가 새로 영입됐지만 아직 보직이 확정되지 않았다.

수석코치가 확정된뒤에 개편 규모와 방향이 정해질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이젠 한·일 챔피언전 '올인'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3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그라운드로 돌아왔다.

한국시리즈 우승자 선수들은 3일간의 꿈같은 휴가를 어떻게 보냈을까? 가장 많은 유형은 '방콕족'이었다.

시즌내내 쉽지 않았던 선수들 대부분은 한국시리즈가 끝난 후 긴장이 풀리면서 몸살을 앓았다.

노장 이종범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 미팅에만 참여하고 병원에 갈 정도로 몸상태가

꿀맛 휴가 끝내고 그라운드 복귀... 훈련 재개

좋지 않아 휴식을 선택했다. 김원섭, 한기주 등의 선수들도 '방콕족'을 자처하며 휴가를 보냈다.

이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 분주한 휴가를 보낸 아버지들도 있다.

'절친한 친구' 김상훈과 서재응은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을 찾았다. 두 아버

지는 합숙훈련을 하느라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아이들과 모처럼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이들은 놀이공원에서 한국시리즈 승리 팀 영웅다운 웅숭한 대접을 받기도 했다.

'무서운 아이들' 안치홍과 나지완은 이 어진 강행군에 휴가를 반납했다. 한국시리즈 MVP 나지완은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

느라 어느때보다 바쁜 3일을 보냈다. 이를 동안 축하파티를 즐긴 안치홍은 최우수신인상 시상식에 참석하느라 서울을 오가며 마지막 하루를 보냈다.

행복한 휴가를 즐긴 예비신랑들도 있다. 겨울 새신랑이 되는 이현곤과 차일복은 미뤄왔던 결혼준비에 바빴다. 먼저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이현곤은 웨딩포토를 찍으며 설레는 휴가를 즐겼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농구·배구도 신종플루 '악재'

신종플루 국내 사망자가 29명으로 늘어나는 등 대유행으로 접어들면서 프로농구, 프로배구 등 실내스포츠 종목이 예방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다.

현재로서는 백신 주사에 의존할 뿐 신종플루 확산을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어 각 구단은 흥행을 차질을 빚지 않을까 노심조사하고 있다. 오는 관중을 막을 수도, 관중을 오지 말라고도 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구단의 고심도 크다. 더구나 객석과 경기

장의 거리가 가까운 실내스포츠 특성상 선수에게도 전염될 공간이 커 경기력에도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프로농구연맹(KBL)은 지난주 정규 시즌 시작 후 각 구단에 공문을 보내 객석 출입문 입구에 손 소독제와 발열감지기를 설치하도록 권유했다. 구단 중에는 발열감지기를 구매한 구단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구단은 보건소의 도움을 받기도 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11월1일 정규

시즌 개막을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와 몇 차례 만나 신종플루 대책을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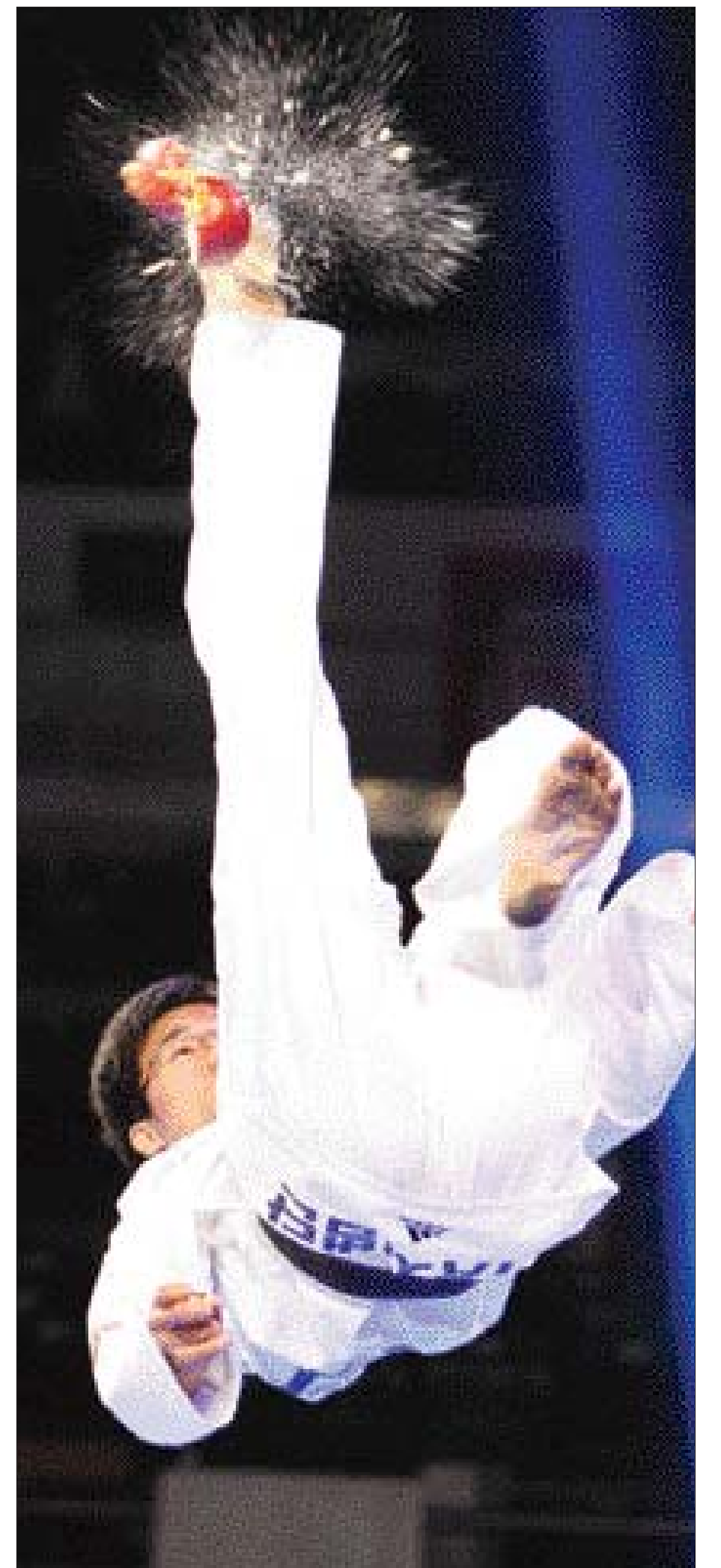
신춘삼 KOVO 경기운영팀장은 28일 "타 종목의 사례 등을 토대로 각 구단에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물티슈, 손 세정제, 발열감지기는 물론 보건소의 협조를 받아 응급요원도 경기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대전 충무체육관에서 현대캐

관중 감소에 흥행 차질 우려
발열 감지기 등 예방책 분주

피탈과 개막전을 준비 중인 지난해 남자부 우승팀 삼성화재의 관계자는 "얼마 전 끝난 전국체전 덕분에 신종플루 대책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배구연맹 관계자는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에 경기가 열리면 경기장 바깥과 안쪽의 자연스러운 온도 차 때문에 발열감지기도 무용지물이 될 것으로 염려된다. 선수들도 혹이나 감염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지우지 못했다. /연협뉴스



태권도 격파왕 도전

TIA태권도선교단 김정민이 28일 오후 장충동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정관장배 2009 KTA 태권도 격파왕대회' 기술격파 부문 투척물 격파종목에서 사과를 던진 뒤 격파하고 있다. /연협뉴스